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4년 3월중)

3.4	<p>▶ 해남군,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공모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남군이 전라남도의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동 지원사업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권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중장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남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사업으로서, 특화상품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p>올해 사업대상지는 문내면사무소 소재지 일원으로, 문내면 발전협의회에서 주도하여 총사업비 1억원 규모의 홍보·마케팅, 소비촉진 행사, 축제 등 특색있는 상권 발굴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p>
3.5	<p>▶ 강진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18억 융자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진군은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18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2.27일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열고 상반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가졌다. <p>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예정자,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또는 주택구입(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p>
3.7	<p>▶ 목포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지원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과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목포시로 전입한 후 관내 조선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5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고,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가 조선업에 신규취업할 때 월 25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10	<p>▶ 전남도, 일하는 청년 자립기반 마련 위해 주거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세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1979~2005년 출생자)이다. 전남도는 저소득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전남도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 통장을 개설해 자산을 형성토록 돕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11	<p>▶ 목포시,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포시는 여성근로자 비율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목포형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살기 좋은 여성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목포형 여성친화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에는 최대 5백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3.11	<p>▶ 무안군,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본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군은 오는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을 투입해 9개 읍, 면에 432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설비(3kw)가 주택에 설치완료되면 앞으로 해당 가구는 연 60만원(월 5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18	<p>▶ 장흥군, 제1회 추경 증액 편성... 주민체감 예산 늘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흥군이 본예산 대비 953억 1백만원이 늘어난 5,890억 3천 8백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3월 6일, 장흥군의회 임시회의 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p>군은 올해 첫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민선8기 역점사업, 주민생활 불편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규모 순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345억원, 환경 154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억원, 문화관광 92억원, 사회복지 분야 49억원 등이다.</p>
3.20	<p>▶ 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총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한다. 최근 실무추진팀을 대상으로 전략 도출 회의를 개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확보한 기초기금으로 ▲청년거점시설 조성 ▲귀농·귀어 정책환경 개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3.27	<p>▶ 전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역 및 사업별 특성에 맞는 취업연계, 기업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 사업이다. 전남도는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해제 이후 여전히 진행중인 인력수급 문제 및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총 106억원을 투입해 1,435명의 고용창출과 23,405건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